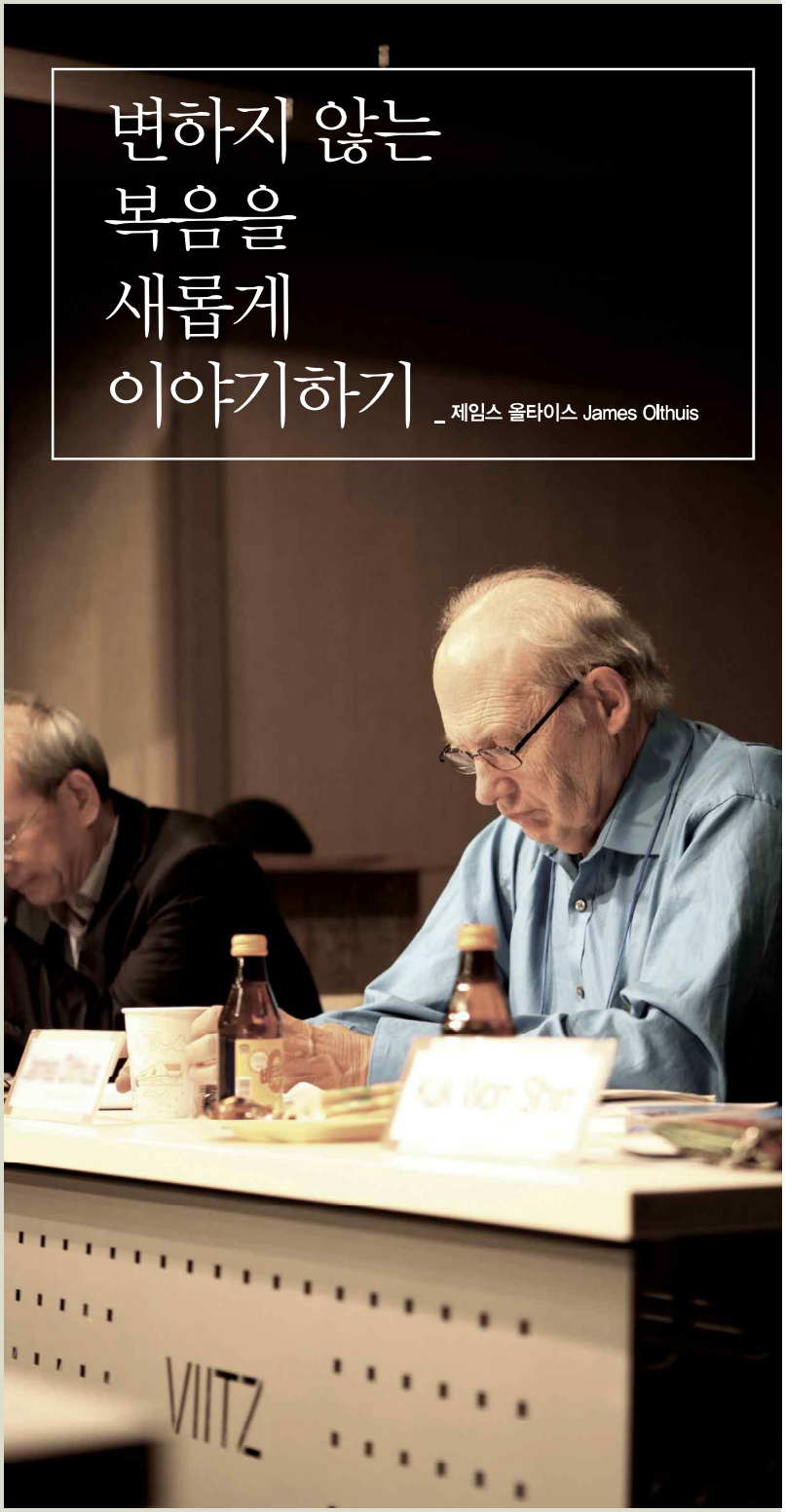
변하지 않는 복음을 새롭게 이야기하기

_ 제임스 올타이스 James Olthuis



번역 **신국원**(총신대 교수) 정리 **김소라**
객원사진작가 **김범무**

기독교 세계관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네덜란드의 철학자 헤르만 도여베르트와 그 위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칼빈주의를 다시 부흥시킨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만나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철학이 아니지만 삶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상식 차원에서 쉽게 소화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기독교 철학을 정립한 도여베르트와 그의 동료 볼렌호벤의 조교로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 담론으로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제임스 올타이스(캐나다 기독학문연구소 명예교수)를 만났다.

Semper Reformanda. All is reformed!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중 하나인 "Always Reforming."
이처럼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도 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특권중 하나는 같은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각기 다른 때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중 하나가 "Always Reforming.", "항상 개혁한다."입니다. 성경적 세계관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최고의 비유는 '안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변화가 생기면 안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관은 비전입니다. 세계를 보는 비전입니다. 세계를 위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을 배우는 것은 남들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안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안경을 벗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은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성경적 안경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안경을 쓰고, 캐나다인은 캐나다인의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유일한 성경적 안경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근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의 안경을 껴야 하지만 세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독일 말로 "Zeitgeist(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안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향수도 좋은 예입니다. 분명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정신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뿌리를 박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실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너, 피조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

당하는 것이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끝을 향해 고난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13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종의 산소 같습니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시고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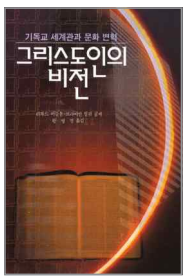
세계관을 갖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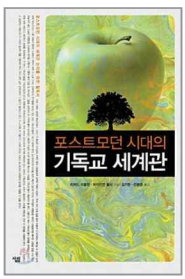
모더니즘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세상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진보와 성장, 이것이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성장의 토대는 이성이며, 이성에 팔(힘)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과학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일흔 다섯인 제가 서른이었을 적,
학문 세계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
교수님들은 그런 얘긴 교회에서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학자들도 학문에 뭔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기는 점점 옅어지고, 물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깨어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향기이며, 안개입니다. 무언가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찬란한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다양성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온갖 것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공허합니다. 다양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omment





제임스 올타이스는 ICS 명예교수로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세계관〉의 저자인 브라이언 왈쉬, 리차드 미들턴의 스승입니다.

모더니즘은
"pretend to be the same(모든 것은 동일하다/동일한 척 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쫓겨나는 억압과 외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different uneasy(차이는 쉽지 않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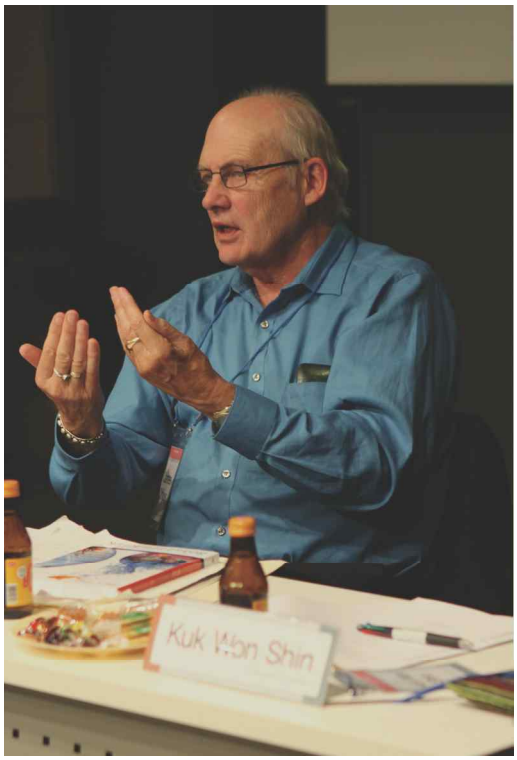
모더니즘(근대)에서 '다름'은 적(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군인, 경영인,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르지만 평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다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의 사회에서 '존중'의 방법을 두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적 소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곧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하나의 개념이나 사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계관은 패러다임입니다.
사실 성경적 세계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사상, 개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세계관(worldview)"보다는
"세상 보기(world viewing)", 곧 동사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은 활동이지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기여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 듣거나 만진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안경을 자연스레 쓰게 됩니다. 세계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느끼고, 보고 들어 세계에 대한 필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암시적, 암묵적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게 책이야."라고 하면, "책이에요."하고 따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국어로 생각하고 보면서 '세상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제가 세계관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성경적 세계관에서 '고통(suffering)'을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롬 8:17)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의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우리가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자 중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먹일 때, 어려울 때 찾아가고 도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더니즘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을 하니, 너희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대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사랑(compassion)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with)' 것이 필요합니다.



Comment

그의 책 〈The Beautiful Risk: A New Psychology of Loving and Being Loved〉를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사랑(compassion)"입니다.
남들과 함께하는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Withing" 우리가 함께하면서(with each other)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책임지며(responsible with) 돌보는 사랑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을 능가하는
포스트-포스트모더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포스트모더니티의 기초는 사랑(compassion)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을 그리워합니다. 소망을 바라지만 소망할 근거, 용기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학이나 이성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조차 이성적으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바 입니다. 혹시 기회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선물을 받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 기증을 한다고 합시다. 혹시 어떤 병원에서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익명으로 무언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선물은 아닙니다. 거래(give and take)입니다. 너의 등을 긁어 주면, 내 등을 긁어주는 식의 거래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끝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느낀 겁니다. 모더니즘은 약속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절망시킵니다. 유명한 포스트모더니스트인 자크 데리다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Comment

모더니즘에 익숙한 우리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양극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제3의 길, 저글링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을 균형잡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더니즘은 길을 잃으면 이성이 레시피를 줄 것이라 소망하며 길 잃은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잃어버렸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그것은 거저 주시는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선 성경적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가질 이유를 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사랑의 사자(agent)가 됩니다. 사랑의(of) 사자이기도 하고, 사랑을 위한(for) 사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삶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실수를 하지요, 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1월 총신대학교에서 원고 없이 진행된 "개혁주의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세미나의 신국원 교수 통역 내용을 편집부에서 녹취하여 정리, 편집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강좌

A Vision of/for Love

-Towards a Christian Post-postmodern Worldview-

James Olthuis with 강영안, 신국원

지난 10월 28일 제임스 올타이스와 동역회의 임원들이 현대와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좌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좌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담내용요약 Identifying distinctive features that need emphasis in a biblical worldview attuned to the postmodern wor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theme of this paper. 1. The embrace of difference as non-oppositional, as challenge to meet, rather than threat to resist. 2. With the postmodern understanding that rational knowledge (Reason and Science) have their limits and that the role of faith is crucial, worldviews need to be seen, not in the first place as conceptual systems, but as faith-oriented, sensory expectancy filters, operating implicitly largely beneath our conscious awareness. 3. Responsibility-to the other rather than freedom-from the other needs to receive emphasis. Such responsibility involves recognizing that voluntary suffering-with the other is crucial to a post-postmodern biblical worldview. 4. A post-postmodern biblical worldview needs to be rooted and grounded as a vision of and for Love. As God is Compassionate Love, and as God is with us (Emmanuel), so we, image-bearers of God, are to embody love and resist evil, living out our confession that we live by Grace and not by Blind Chance.